

現代思想入門

현대사상

입문

Jacques Derrida

Gilles Deleuze · Michel Foucault

Friedrich Nietzsche · Sigmund Freud

Karl Marx · Jacques Lacan

Pierre Legendre · Emmanuel Levinas

Catherine Malabou · Quentin Meillassoux

Graham Harman · François Laruelle

데리다, 들뢰즈, 푸코에서 메이야수, 하먼, 라뤼엘까지
인생을 바꾸는 철학

지바 마사야 지음

arte

김상운 옮김

現代思想入門

현대사상 입문

Jacques Derrida
Gilles Deleuze · Michel Foucault
Friedrich Nietzsche · Sigmund Freud
Karl Marx · Jacques Lacan
Pierre Legendre · Emmanuel Levinas
Catherine Malabou · Quentin Meillassoux
Graham Harman · François Laruelle

데리다, 들뢰즈, 푸코에서 메이야수, 하먼, 라튀엘까지
인생을 바꾸는 철학

지바 마사야 지음

arte

김상운 옮김

019
Philos

現代思想入門

현대사상

입문

Jacques Derrida

Gilles Deleuze · Michel Foucault

Friedrich Nietzsche · Sigmund Freud

Karl Marx · Jacques Lacan

Pierre Legendre · Emmanuel Levinas

Catherine Malabou · Quentin Meillassoux

Graham Harman · François Laruelle

데리다, 들뢰즈, 푸코에서 메이야수, 하먼, 라뤼엘까지
인생을 바꾸는 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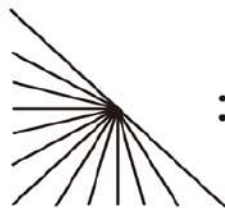
지바 마사야 지음

arte

김상운 옮김



시작하며



: 지금 왜 현대사상인가



Jacques Derrida
Gilles Deleuze
Michel Foucault
Friedrich Nietzsche
Sigmund Freud
Karl Marx
Jacques Lacan
Pierre Legendre
Emmanuel Levinas
Catherine Malabou
Quentin Meillassoux
Graham Harman
François Laruelle





지금 왜 현대사상을 배우는가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게
단순화할 수 없는 현실의 어려움을 전보다 ‘높은 해상도’로 파악
할 수 있게

1

2

현대사상은 질서를 강화하는 움직임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질서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 즉 ‘차이’에 주목합니다.

20세기 사상의 특징은 배제되어 온 불필요한 것을 창조적인 것으로 긍정했다

5

6

질서를 만드는 사상은 그것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질서에서 벗어나는 사상도 필요하다는 이중 체계로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입문을 위한 입문

포스트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던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가치관이 다양해지고
공통의 이상이 상실된 것 아닌가 하는 것이 포스트모던 단계
‘거대 서사[큰 이야기]’가 없어졌다

이항대립을 탈구축하는

일

단 철저하게 기성 질서를 의심해야 근본=급진적으로 ‘함께’의 가능성을 다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현대사상의 자세stance

구조주의

9

10

이항대립의 탈구축

사물을 ‘이항대립’, 즉 ‘두 개념의 대립’에 의해서 파악하여 좋고 나쁨
을 말하려는 것을

이항대립 중 어느 쪽이

플러스인지를 절대적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

이항대립은 어떤 가치관을 배경으로 하느냐에 따라 한쪽이 플러스가 되고 다른 쪽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데리다는 ‘개념의 탈구축’, 들뢰즈는 ‘존재의 탈구축’, 푸코는 ‘사회의 탈구축’

회색 지대에야말로 인생의 리얼리티가 있다

능동성과 수동성이 서로를 밀치고 뒤펅키면서 전개되는 회색 지대가 있고, 바로 거기에 삶의 리얼리티가 있습니다.

데리다

: 개념의 탈구축

Jacques Derrida
Gilles Deleuze
Michel Foucault
Friedrich Nietzsche
Sigmund Freud
Karl Marx
Jacques Lacan
Pierre Legendre
Emmanuel Levinas
Catherine Malabou
Quentin Meillassoux
Graham Harman
François Laruelle



테리다의 독특한 스타일

이항대립dichotomy

이항대립에서 벗어나는 차이

현대사상이란 차이의 철학이다

하나의 정해진 상태가 아니라 어긋남[간극]이나 변화
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사상의 큰 방침

뭔가 ‘가고정적’인 상태와 그 탈구축이 되풀이
되는 이미지로 데리다의 세계관을 포착해 주었으면

어쨌든 차이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물
[일]에는 일정한 상태를 취하는 면도 있다

가고정
적인 동일성과 차이 사이의 율동적인 왕래

동일성은 절대
가 아니다,라는 마인드를 갖는 것

파롤과 에크리튀르

에크리튀르는 하나의 같은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 곳으로 흘러 나가 해석이라고 할까 오해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항대립의 분석

마주 대함

① 우선 이항대립에서 한쪽을 마이너스로 하는 암묵적 가치관을 의심하고 오히려 마이너스의 편을 드는 다른 논리를 생각합니다.

② 대립하는 항이 상호 의존하며,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는 것도 아니고 승패가 유보된 상태를 그려 냅니다.

③ 그때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 이항대립의 ‘결정 불가능성’을 담당하는 제3의 개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의 중요성

“본질적인 것이 중요하다”라는 상식을 데리다는 진심으로 파헤치려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가 먼가

직접적인 현전성, 본질적인 것: 파롤

간접적인 재현전, 비본질적인 것: 에크리튀르

파롤은 직접 진의를 전한다, 에크리튀르는 간접적이기 때문에 오독된다.

탈구축의 윤리

탈구축의 발상은 불필요한 타자를 배제하고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고 싶다는 생각에 개입하는

일체의 물결이

일지 않는, 투명하고 안정된 것으로서 자기나 세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탄산이고, 거품이 일고, 소음으로 시끄러우며, 그러나 모종의 음악적인 매력도 가지고 있는 듯한, 웅성거리는 세계로서 세계를 파악하는 것이 데리다의 비전이다

자연과 문화는 서로 의존하고 있으며 주종이 계속 바뀝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이든 문화든 파르마콘적으로 양의적인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무엇인가를 잘라 버렸다, 고려에서
배제해 버렸다는 것에 대해 창피하다는 생각이 남을 것입니다.

미련이야말로 바로 타자성에 대한 배려

미련에 찬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야말로 ‘어른’

그들의 사상은 “애초에 인간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우선 행동하지요”라는 것을 암묵적인 전제로 삼는 것이라고 파악하는 편이 좋습니다.

미련에 찬 결단이라는 윤리성을 띤 결단

들뢰즈

: 존재의 탈구축

Jacques Derrida
Gilles Deleuze
Michel Foucault
Friedrich Nietzsche
Sigmund Freud
Karl Marx
Jacques Lacan
Pierre Legendre
Emmanuel Levinas
Catherine Malabou
Quentin Meillassoux
Graham Harman
François Laruelle



들뢰즈의 시대

18



옆으로 이어지는 다방향적인 관계성을 들뢰즈+가타리는
‘리좀’이라고 불렀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모두가 발언권을 갖게 된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리·통제 사회의 도래이기도 했습니다.

20

차이는 동일성에 앞선다

22

23

24

25

26

27

28

29

세계는 차이로 이루어져 있다.

동일성보다 차이가 먼저

[생성을 마친]

버추얼한 관계의 얹히고설킴

언뜻 보기에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라도 사실 그 뒤에서는 보이지 않는 실에 의해 얹혀 있다

모든 동일성은 가고정이다

원래 A, B라는 동일성보다 앞에서 여러 방향으로
다종다양한 시소가 요동치고 있다

프로세스는 항상 도중이다

세계는 시간적이며 모든 것은 운동의 한가운데
에 있다

모든 사물
은 상이한 상태로 ‘되는’ 도중途中입니다.

한 사람도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사건’

모든 것은 도중이고, 진정한 시작이나 진정한 끝은 없다

모든 것은 생성
변화하는 도중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을 ‘내친김에’ 해 나가는
꿀팁이 됩니다. 모든 작업을 내친김에 한다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다양한 실천으로

자

기 자신을 극히 좁은 범위=가족에서의 동일성만으로 생각하는 것은 리
얼하지 않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해서 스스로
로 준안정상태를 만들어 나가라

‘진정한 나의 본모습’을 탐구할 필요는 없다, 그러
니까 여러 가지를 하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어떻게든 될 것이다

이중으로 생각하다

34

35

‘지나치게 ~하지 않다’의 필요성

리즘은 곳곳으로 퍼져 나가는 동시에 곳곳에
서 두절되기도 한다 그것을 ‘비의미적 절
단’이라고 합니다.

너무
관여만 하게 되면 그로 인해 감시나 지배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고, 그
것에 대한 균형으로서 너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할 필요도 있다

노마드의 유리

하나의 구심적인 전체성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운 관계

전체성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은 ‘도주선’이라고 불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가치관의 싸움으로부터 디태치^{detach}=유리^{遊離}되고, 하지만 서로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게다가 그 배려가 타자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매우 어려운 안배를 유지할 수 있는가

관리·통제 사회 비판

접속과 절단의 균형

창의적인
관계성을 넓히면서, 게다가 비-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 인간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필요한 사랑이 되고 지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는 판단이 문제 된다

푸코

: 사회의 탈구축

Jacques Derrida
Gilles Deleuze
Michel Foucault
Friedrich Nietzsche
Sigmund Freud
Karl Marx
Jacques Lacan
Pierre Legendre
Emmanuel Levinas
Catherine Malabou
Quentin Meillassoux
Graham Harman
François Laruelle



권력의 이항대립적 도식을 흔들다

지배를 당하고 있는 우리는 사실
그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바라는’
구조가 있다

권력에는 위로부터 짓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 그것을
지탱하는 구조도 있어서, 진짜 나쁜 것을 찾는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죠.

43

44

도주선을 그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층 어렵다

‘정상’과 ‘비정상’의 탈구축

이른바 ‘정상적인 것’은 기본적으로는 다수파, 메이저리티⁴⁹를 말하는 것이며, 사회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귀찮은 것, 방해되는 것이 ‘비정상’이라고 정리되는 것입니다.

이런 청정화야말로 바로 근대화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통치는 사람에게 살가워지는 것 같고, 더 강해지는

권력의 세 가지 모습

규율 훈련: 자기 감시를 행하는 마음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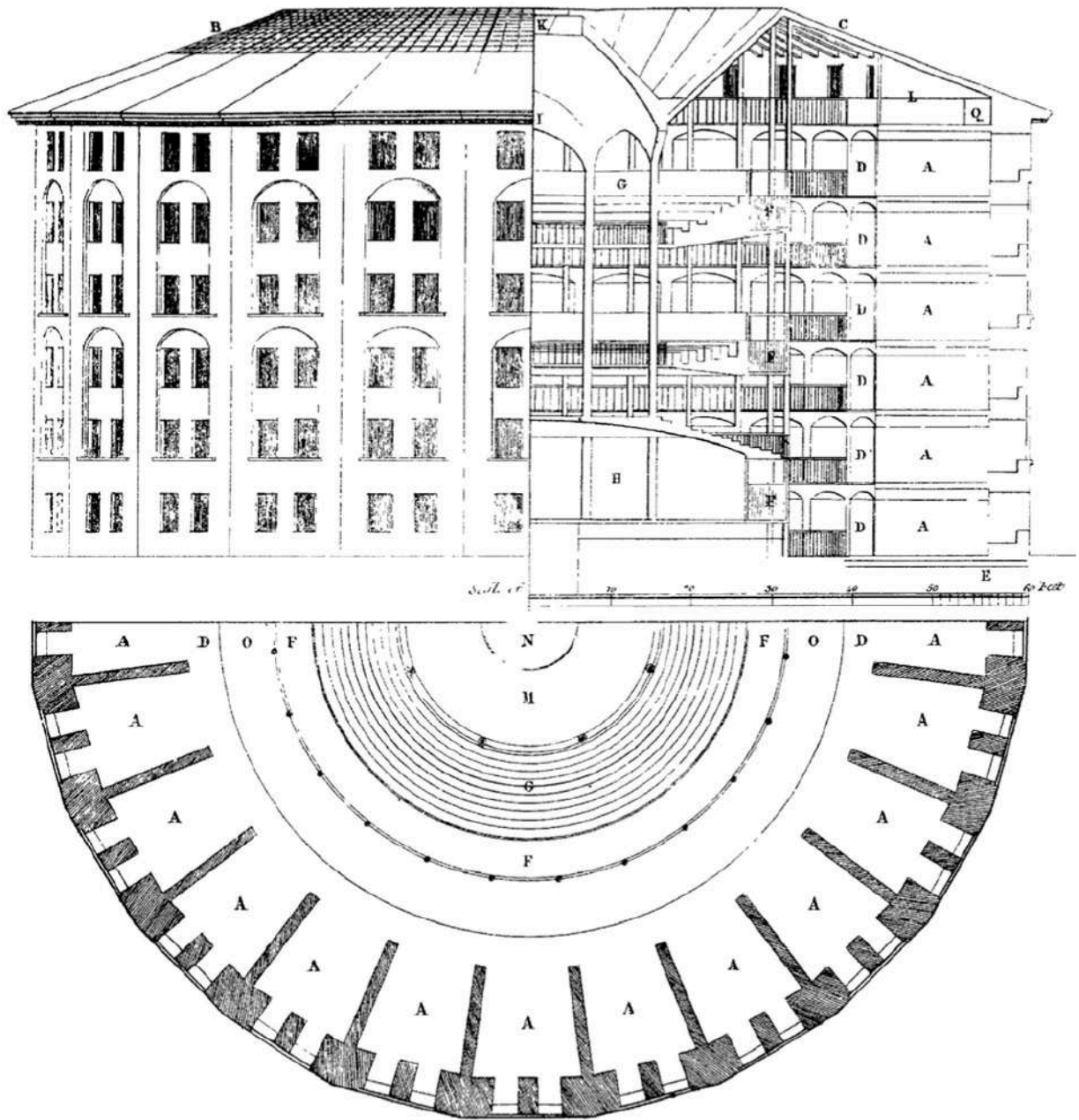
50

누구에게 보이지 않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죄수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오히려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감시하는 스스로 자신을

지배자가 비가시화된다



판옵티콘 (『감시와 처벌』)

51

52

이것이 개인적인 마음의 발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프라이버시, 이른바 개인적인 것은 그러한 자기 억제와 함께 성립한 것입니다.

생명정치: 즉물적 관리·통제의 강화

생명정치는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즉물적인 수준에서 기능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의 발생률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출산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구밀도를 생각해서 도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런 수준에서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통치 방식입니다.

근현대 사회는 규율 훈련과 생명정치라는 두 바퀴로 움직이고 있다

인간의 다양성을 헤엄치게 두다

확실히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것 같은 “좀 특이하다”라거나 “뭔가 개성적이다”라는 모습을, 단지 그것만으로 헤엄치게 하는 윤리

‘새로운 고대인’이 되기

정체성이라는
것이 성립하는 그때 좋은 정체성과 나쁜 정체성이라는 이항대립이 동
시에 성립된 것

‘항상 계속 반성해야 하는 주체’보다 이전 단계로 돌아간다

고대의 세계는 좀 더
유한했습니다. 자기와의 끝없는 투쟁을 하기보다는 그때마다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히 자신의 인생을 관리·통제했습니다. 이것을 고대에서
는 ‘자기에의 배려’라고 불렀습니다.

✧ 여기까지의 정리

이항대립의 오히려 마이너스 쪽, 열위 쪽을 편들 수 있는 논리를 생각하고, 주장되고 있는 가치관에 대항합니다. 그리고 대립의 양쪽이 서로 의존하는 이른바 ‘중지·유예’의 상태로 끌고 갑니다. 그런 논법이 ‘이항대립의 탈구축’입니다.

A가 B가 ‘된다’— A가 B를 ‘답는다’고 말해도 되겠죠 — 같은, 구별을 횡단하는 새로운 관계성을 발견하는 동시에, A와 B가 동일해지지 않는, 구별을 횡단하는 새로운 무관계 또한 발견한다는 것이 창의적인 의식

푸코는 “권력은 아래에서 온다”라며 약자가 오히려 지배받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바라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사실상 권력의 시작점은 명확하지 않고 그야말로 들뢰즈적 의미에서 다방향의 관계성(과 무관계성)으로서 권력이 전개되고 있다는 시각을 보여 주었습니다.

현대사상의 원류

: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

Jacques Derrida
Gilles Deleuze
Michel Foucault
Friedrich Nietzsche
Sigmund Freud
Karl Marx
Jacques Lacan
Pierre Legendre
Emmanuel Levinas
Catherine Malabou
Quentin Meillassoux
Graham Harman
François Laruelle



질서의 외부, 비이성적인 것으로

비이성적인 것 쪽에 진정한 문제가
있다는 방향 전환

“위험한 것이야말로 창의적이다”라는 20세기
적 감각, 이를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세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
다

니체: 디오니소스와 아폴론의 맞버림

우선 디오니소스적 에너지가 중요하며,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일이
성립되지 않으며, 아폴론적 형식과의 맞버팀에서 무언가가 성립합니

다.

확실히 혼란이야말로 생성의 원천이지만, 그것과 질서=형식성 사이의 힘의 균형power balance이야말로 문제입니다

하부구조 쪽으로

‘형상’과 ‘질료’라는 대립

형상과 질료의 주도권이 역전되는

질료 즉 물질이나 신체 쪽이 요컨대 디오니소스적이고 위험한 것이며, 그것을 형상 즉 거푸집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프로이트: 무의식

자신이 확실히 의식하지 못하는, 잘 모르는 이유로 무엇인가
를 했다

디오니소스적인 것=무의식

무의식적으로는 무엇인가 성적인 에너지의 응어리가 있고,
그것이 외견상 성적으로 생각되지 않는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정신분석의 실천과 작용

정신분석의 진짜배기는 기억의 연결고리를 어떤 틀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것을 고구마덩굴처럼 끌어내고 시간을 두고 말하는 과정을 거쳐 서서히 자신이 총체적으로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무의식과 우연성

내 안의 무의식적인 말과 이미

지의 연쇄는 내 안의 ‘타자’이다

무의식이란 과거의 여러 사건이 우연적으로 어떤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알 수 없음은 과거의 여러 연결의 우연성 때문입니다.

서사적 의미 아래서 꿈틀거리는
윙동적인 구조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란 억압된 무의식이며, 그것은 이야기
기[서사]적 의미 아래 꿈틀거리는 율동적인 사건들의 무리

근대적 유한성

인간에게는 필터 같은 것이 갖

추어져 있고, 그것을 통과한 것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필터를 빼고서는 세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이 필터를 칸트는 ‘초월론적인 것’이라고 불렀어요.⁵⁵

마르크스: 힘과 경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에 대해 임금을 받는데,
이 임금은 생활에 필요한 금액이고, 결과적으로 임금에 상응하는 것 이
상으로 생산하게 되어 그 잉여의 이익, 즉 '잉여가치'를 사용자=자본가
가 뽕땅을 친다

인간에게는 본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힘이 있을 터인데, 우연적인
입장 차이로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힘을 되찾으려면

착취

당하고 있어도 쾌적하기 위해 스스로 자진해서 [착취당할]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의식을 높게 갖는다는 것은 착취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힘을 더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까를 생각한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힘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같

은 씨름판, 같은 기준으로 모두와 경쟁하여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자신의 성립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 그것을 우연성에 열고, 우연히 이렇게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을 재발견하는 것

정신분석과 현대사상

: 라캉, 르장드르

Jacques Derrida
Gilles Deleuze
Michel Foucault
Friedrich Nietzsche
Sigmund Freud
Karl Marx
Jacques Lacan
Pierre Legendre
Emmanuel Levinas
Catherine Malabou
Quentin Meillassoux
Graham Harman
François Laruelle



현대사상의 전제로서의 정신분석

인간은 과잉의 동물이다

정신분석은 인간에 대한 하나의 정의를 줍니다. 그것은 “인간은 과잉의 동물이다”라는 것입니다.

62

63

본능과 제도

본능이란 ‘제1의 자연’이고, 동물한테 그것은 상당히 자유도가 낮지만, 인간은 그것을 ‘제2의 자연’인 제도에 의해서 변형하는

애초에 과잉이며, 정리되지 않은 인지의 에너지를 어떻게든 제한하고 정류_{整流}해 간다는 것이 인간의 발달 과정

욕동의 가소성

인간은 인지 에너지를 남긴다.

본능의 수준에 이성애의 큰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욕동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욕동의 수준에서 예를 들어 동성애라는 또 다른 접속이 성립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능에서 이성 간 생식이 대경향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욕동의 수준에서 일종의 일탈로서 재형성됨으로써 비로소 정상화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정상이라는 일탈’ ‘정상이라는 도착’입니다.

라캉: 주체화와 향락

인간이 얼마나 한정되고 이른바 ‘유한화’ 되는
가

이상적인 상태에서부터 튕겨 나가는 것을 ‘소외’라고 합니다. 정신분석
적으로는 어머니가 반드시 줄곧 곁에 있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처
음이자 가장 큰 소외입니다.

죽음의 우연성과 이웃하는 듯한 쾌를 라캉은 ‘락jouissance’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장하고 나서의 욕망에는 일찍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안심
·안전(=쾌락)을 요구하면서 불안이 갑자기 해소되는 격렬한 기쁨(=향락)을
맞본 것의 잔향殘響이 있습니다.

거세란 무엇인가

자신 이외의 누군가=제3자와의 관계
때문에 어머니가 없어져 버린다, 즉 어머니를 그 누군가가 자신에게서
빼앗는다

“객관세계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더는
모자 일체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결정적인 상실을 떠안게 되는 것이
거세입니다.

결여의 철학

이를 손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하는 특별한 대상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라캉 용어로 ‘대상 a’라고 합니다.

만약
에 뭔가 손에 넣게 되어 “좋아, 이제 인생의 목표가 달성됐어”라고 하면
그 후 살아갈 기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결국 어떤 대상 a를 동경하다가
배신당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인생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이미지의 세계와 언어에 의한 구별

첫 번째인 ‘상상계’는 이미지의 영역, 두 번째인 ‘상징계’는 언어(혹은 기호)의 영역으로, 이 둘이

합쳐져 인식을 성립시킵니다.

세 번째인 ‘현실계’는 이미지로도 언어로도 파악할 수 없는, 즉 인식으로부터 벗어나는 영역입니다.

혼란스러운 연결의 세계가 언어로 구분되고, 구분되는 쪽
에서 세계를 보게 됩니다.

현실계, 파악할 수 없는 ‘진짜배기’

그렇다면 의미 전의 현실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장하기 전의, 그 원초적인 때입니다. 자극의 폭풍에 휩쓸리고 어머니의 변덕에 휘둘리던 불안의 때, 불안으로 인한 향락의 때입니다.

대상 a를
전전함으로써 도달할 수 없는 ‘진짜배기’=X의 주위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 X가 이미지도 언어도 할 수 없는 이른바 “말하기 어려운 저 것”으로서의 현실계입니다.

70

71

르장드르: 도그마 인류학

어떤 단계에서, 사실상 거기서 막다른 골목인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명제에 봉착하게

72

이러니까 이렇다, 하는 어쩔 수 없음은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거세입니다.

의례에 의한 유한화

사람은 규율 훈련을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지 에너지가 넘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는 불쾌하고, 거기에 제약을 걸어 자신을 안정시키는 것에 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규칙에서 벗어나 에너지를 폭발시키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부정신학 비판

이러한 X로 견인되는 구조에 대해 일본의 현대사상에서는 ‘부정신학적’이라고 말합니다.

칸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부정신학적인 X는 ‘물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칸트가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상계와 상징계의 조합입니다. 인간은 이미지(감성)와 언어(오성)에 의해 세계를 현상으로서 파악합니다. 그러나 그 맞은편에 현실계(물자체)가 있으며 그것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접촉하려고 하면 계속 실패합니다.

부정신학이라는 표현으로 근현대의 사상을 포착한 것은 아즈마 히로키의 『존재론적, 우편적』입니다. 아즈마에게서 ‘부정신학 시스템’의 대표로 간주되는 것이 라캉의 이론입니다.

어떻게 부정신학 시스템에서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을 ‘부정신학 비판’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일본 현대사상의 특징입니다.

그 전제에 있는 것은 푸코의 『말과 사물』입니다. 부정신학 시스템이란 사물 ‘그 자체’에 도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근대적 유한성의 다른 이름입니다.

인생의 모습을 좀 더 복수적으로 만들어, 각자 자율적인 기쁨을 인정하자

무한의 수수께끼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행위를 하나하나 해낸다는 방향성

현대사상을 만드는 방법

Jacques Derrida
Gilles Deleuze
Michel Foucault
Friedrich Nietzsche
Sigmund Freud
Karl Marx
Jacques Lacan
Pierre Legendre
Emmanuel Levinas
Catherine Malabou
Quentin Meillassoux
Graham Harman
François Laruelle



새로운 현대사상가가 되기 위해

현대사상을 만드는 네 가지 원칙

① 타자성의 원칙:

그 시점에서 전제가 되는 앞 시대의 사상, 선행하는 큰 이론 혹은 시스템에서 어떠한 타자성이 배제되어 있다, 누락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② 초월론성의 원칙:

선행하는 이론에서는 어떤 타자성 X가 배제되어 있다, 고로 타자성 X를 배제하지 않는 더 근본적인 초월론적 수준=전제를 제시한다

③ 극단화의 원칙:

배제되었던 타자성 X가 극단화된 상태로서 새로운 초월론적 수준을 설정하는

④ 반상식의 원칙:

반상식적인 것이 초월론적인 전제로서 있는 것이다

데리다: 원-에크리튀르

사실상 세계는 근본적으로는 에크리튀르적 차이가 도처에 있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의 초월론적 전제로서 발견합니다.

들뢰즈: 차이 그 자체로

동일한 A와 B 사이
의 차이가 아니라 ‘차이 그 자체’가 세계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는 존재론이 나오게

레비나스: 존재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철학사는 타자의 문제를 배제해 왔다, 그
래서 타자 쪽으로 향하는 철학을 생각해야 된다

철학자들

이 대단한 것은 이러한 초超추상적인 수준에서의 정치성을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존재론이라는 극단적 추상성에 저항하는, 근본적인radical 의
미에서의 타자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75

76

그래서 말이 무리無理를 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랄까, 이럴 때 말이 무리를 하게 하는 것이 철학자의 재미있는 점입니다.

이제

부사어로만 말할 수 있다는 것

여기가 철학이 수학과는 다른 식으로 도달하는 독특한 추상성의 세계입니다.

네 가지 원칙의 연계

포스트-포스트구조주의로의 전개

21세기에 들어서 서양에서의 포스트-포스트구조주의 전개는 포스트
구조주의적 동일성과 차이의 이항대립을 더욱 탈구축하는 형태로 전개
되어 가는 것

말라부: 형태의 가소성

“모든 것은
가고정적으로 형태를 가지면서도 차이화하고 변화해 간다”라는 유형의
차이 개념

메이야수: 절대적 실재와 그 변화 가능성

인간의 해석에 좌우되지 않는 그
저 단적으로 동일적으로 존재하는 물자체로서의 실재

절대적 실재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연적이며, 그렇다면 그대로의 모습으로 계속 존재할 필연성은 없습니다. 단적인 실재는 그저 우연일 뿐 언제든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화할지도 모른다

포스트- 포스트구조주의

Jacques Derrida
Gilles Deleuze
Michel Foucault
Friedrich Nietzsche
Sigmund Freud
Karl Marx
Jacques Lacan
Pierre Legendre
Emmanuel Levinas
Catherine Malabou
Quentin Meillassoux
Graham Harman
François Laruelle



21세기의 현대사상

사변적 실재론의 등장

인간에
의한 의미 부여와는 관계없이, 그저 단적으로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사
물 쪽으로 향한다

모든 존재자=객체는 근본적으로 제각각이며 절대적으로
무관하게 존재하며 관계는 이차적인 것

의미 부여의 바깥에 있는 객관성

실재 그 자체의 상대주의

세계의 의미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지금 그러한 한에서의 설계를 그저 기술하는 것이 수리입니다. 또 기술되는 세계는 그것을 보증하는 근원적 의미가 전혀 없고, 언제 어느 때, 전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 버려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내재성의 철저: 하먼, 라뤼엘

철학

은 항상 부정신학적 X를 필요로 해 왔는데, 그러한 것으로서의 철학 전체의 바깥에 스스로를 위치시키는

① 타자성의 원칙:

② 초월론성의 원칙:

③ 극단화의 원칙:

복수성의 문제와 일본 현대사상

현대사상에는 1960년대 후반에 부정신학 시스템이 의식되는 단계가 있었고, 이후 하나의 X를 둘러싼 것이 아니라 더 분산적이고 복수적으로 여러 관계를 전개해 나가는 방향으로 데리다나 들뢰즈는 논의를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사상에서 라캉은 부정신학적 사고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한성 이후의 새로운 유한성

수수께끼의 X를 파고들지 않고, 생활 속에서 과제_{task}가 하나하나 완료되어 간다는 그런 이미지의, 담담한 유한성

복수적 문제에 유한하게 씌름하다

세속성의 새로운 깊이

84

85

하나의 신체가 실재한다. 그것에 깊은 의미는 없다.

신체의 근본적인 우연성을 긍정하는 것, 그것은 무한한 반성에서 벗어나 개별적인 문제와 유한하게 씨름하는 것입니다.

부 록

현대사상 읽기

Jacques Derrida
Gilles Deleuze
Michel Foucault
Friedrich Nietzsche
Sigmund Freud
Karl Marx
Jacques Lacan
Pierre Legendre
Emmanuel Levinas
Catherine Malabou
Quentin Meillassoux
Graham Harman
François Laruelle



독서는 모두 불완전하다

철학서를 한 번 통독하고 이해하기
란 많은 경우 무리가 있으며, 얇게 덧칠하듯이 ‘빠짐’이 있는 읽기를 여
러 번 행하여 이해를 켜켜이 쌓아 나가세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읽어
왔어요.

불완전한 독서도 독서
입니다, 뭐랄까 독서는 모두 불완전한 것입니다.

현대사상을 읽기 위한 네 가지 포인트

- ① 개념의 이항대립을 의식한다.
- ② 고유명사나 토막 지식 같은 것은 무시하며 읽고, 필요하면 나중에 알아본다.

- ③ ‘격조 높은’ 수사학에 휘둘리지 않는다.
- ④ 원전은 프랑스어이기에 서양 언어라는 점에서 영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되 문법구조를 어느 정도 의식한다.

원문의 구조를 영어라고 생각하고 추측한다

원문의 구조를 영어라고 생각하고 추측

어딘가 추상성이 높을 것
같은 프랑스어 문장의 멋들어짐은 상대적으로 적은 어휘로 여러 가지를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수사학에 휘둘리지 말고 필요한 정보만 꼬집어낸다

고전을 의식한 문
장에는 상투적인 수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무엇을 말할 것인가보다 먼저 그 진부한 ‘거푸집’이 있고, 거푸집에 끼워 넣는 형태로 하고 싶은 말을 꺼낸다거나 거푸집에 끼워 넣기 위해 하고 싶은 말을 일부러 과장하거나 크게 본질적이지 않은 장식적인 문장으로 글을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만을 ‘과학적’으로 끄집어낸다

고유명사나 토막 지식을 무시한다

주요 스토리와 그것을 보완하는 서브 부분을 구별해서
읽는

개념의 이항대립을 의식한다

개념의 이항대립을 의식

하는

저자가 대립하는 A측과 B측에 어떤 말을 배
정하고 그 양측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러나 독서를 할 때는

우선 이항대립의 탈구축을 하지는 마세요. 저자가 설정하고 있는 이항
대립을 그대로 쫓아가세요. 개념의 지도를 그리세요. 즉, 읽으면서 판
지를 걸지 마세요.

케이스 1: “뭔가 멋지네”

생성된

[생성을 마친]

생성된[생성을 마친]

케이스 2: ‘갑툭튀’⁸⁷의 수사학에 파고들지 않는다

케이스 3: 장식은 발라내고 뼈대만 취한다

불균등한 것들

것들

불균등한 것들

불균등한

케이스 4: 핑계의 고도의 불량성

말하고 싶은 내용을 쓰기 수준에서 일종의 퍼포먼스로 보여 주기

철저히 논리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일일이 의심하고 “일단 가고정하겠습니다만”이라는 체재體裁로 논의해 나갑니다.

질서와 일탈

웁긴이의 말

3

4

7

8

Philos 019

현대사상 입문

1판 1쇄 인쇄 2023년 5월 17일

1판 1쇄 발행 2023년 6월 1일

지은이 지바 마사야

옮긴이 김상운

펴낸이 김영곤

펴낸곳 (주)북이십일 아르테

책임편집 김지영 박장호 편집 최윤지

디자인 어나더페이퍼

기획위원 장미희

출판마케팅영업본부 본부장 민안기

마케팅 배상현 한경화 김신우 강효원

영업 최명열 김다운 김도연

해외기획 최연순 이윤경

제작 이영민 권경민

출판등록 2000년 5월 6일 제406-2003-061호

주소 (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201(문발동)

대표전화 031-955-2100 팩스 031-955-215 이메일 book21@book21.co.kr

(주)북이십일 경계를 허무는 콘텐츠 리더

아르테 채널에서 도서 정보와 다양한 영상자료, 이벤트를 만나세요!

페이스북 facebook.com/21arte

블로그 arte.kro.kr

인스타그램 instagram.com/21_arte

홈페이지 arte.book21.com

ISBN 978-89-509-5750-6 05100

전자책 정가 19,200원

본 전자책은 주식회사 북틀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35 신보빌딩 3층

대표전화 | 070-7848-9387

대표팩스 | 070-7848-9388

이 전자책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형사/민사상의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회의의 KoPub서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리다, 들뢰즈, 푸코, 라캉, 메야슈 ...
복잡한 세계의 현실을 고해상도로 파악하고
인생을 혁신하는 '현대사상'의 관점

돌이켜 보면 현대사상을 통해 제가 격투해 온 것은 ‘질서와 일탈’이라는 테마였습니다. 이 책은 입문서이기도 하지만, ‘질서와 일탈’이라는 두 극의 드라마로서 현대사상을 다시 그려 낸 연구서이기도 합니다. 현대사상은 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앞뒤 생각 없이 일탈적인 것을 찬양하는 사상처럼 비판받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더 어려운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제가 줄곧 생각해 온 것입니다. 현대사상은 질서를 가고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끊임없이 일탈이 일어나면서도 여러 요소가 어떻게든 공존하는 상태를 고찰하고 있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런 질서와 일탈의 관계는 제게는 예술의 문제, “예술적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문제이고,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의 테마였습니다.

—마치며에서

Philos 사유의 새로운 지평

인문·사회·과학 분야 석학의 문제의식을 담아낸 역작들
앓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우리 시대의 지적 유산

001
002
003

경이로운 철학의 역사 1-3

움베르토 에코·리카르도 페드리가 편저 | 윤병언 옮김

문화사로 읽은 철학적 사유의 계보
움베르토 에코가 기획 편저한 서양 지성사 프로젝트
165x240mm | 각 904쪽, 896쪽, 1096쪽 | 각 98,000원

013

법, 문명의 지도

퍼난다 피리 지음 | 이영호 옮김

법은 권력을 행사하는 도구인가, 권력에 저항하는 수단인가
전 세계 법체계의 흥망성쇠를 통해 본 인류 문명사
152x225mm | 624쪽 | 40,000원

015

자유주의와 그 불만

프랜시스 후쿠야마 지음 | 이상원 옮김

30년 전 역사의 승자였던 자유주의는 어떻게 왜곡되었나
자유주의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이자 가장 예리한 옹호
132x204mm | 264쪽 | 24,000원

017

라이어스

케스 셉스타인 지음 | 김도원 옮김

가짜뉴스, 혐오표현이 난무하는 시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짓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132x204mm | 272쪽 | 24,000원

018

느낌의 발견

안토니오 다마지오 지음 | 고현석 옮김 | 박한선 감수·해제

느낌에서 찾는 의식과 자아의 기원
'정서-느낌'에 관한 3부작 중 하이라이트!
135x218mm | 544쪽 | 38,000원

020

자유시장

제이컵 솔 지음 | 홍기빈 옮김

키케로에서 프리드먼까지 세계를 지배한 2000년 경제사상사
당신이 몰랐던, 자유시장의 새로운 기원과 미래
132x204mm | 440쪽 | 34,000원

- Philos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